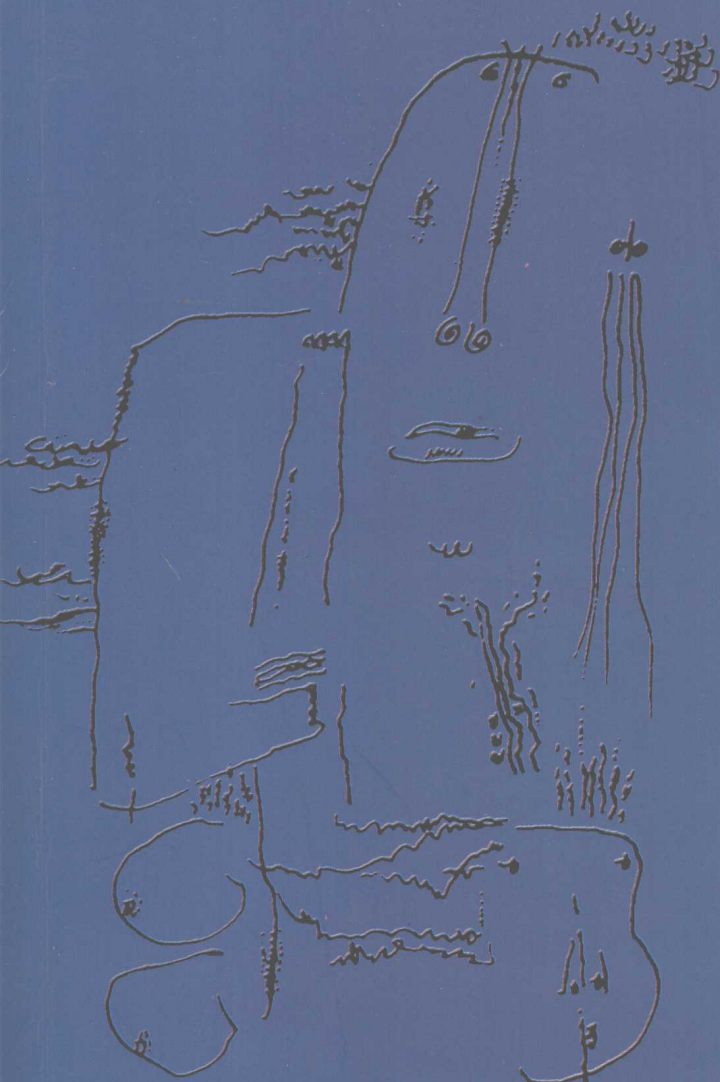


2007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 수상작가작품집

산 사의 밤

조헌호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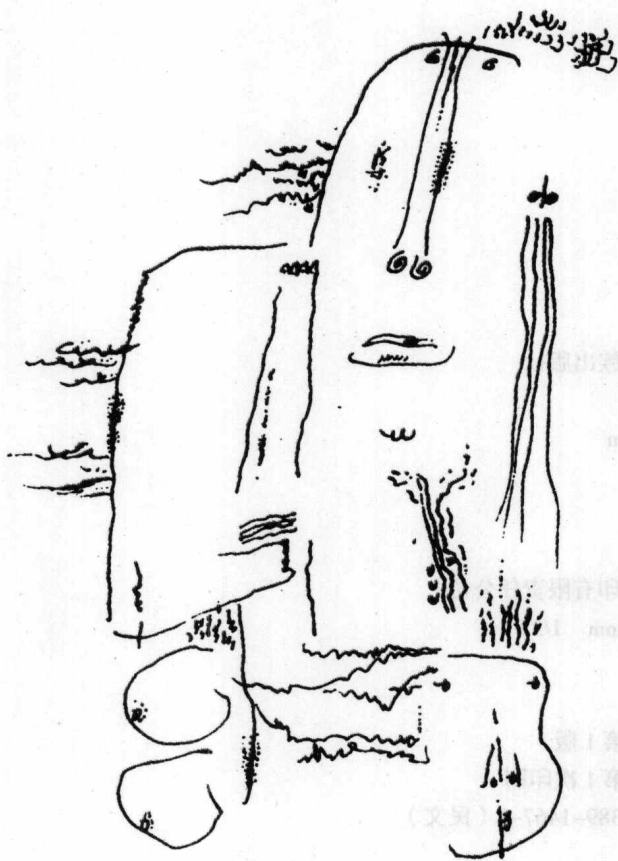


2007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 수상작가작품집

산 사의 밤

조현호 저



문학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山夜: 朝鲜文 / 赵宪浩著.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7.9

ISBN 978-7-5389-1467-2

I. 山… II. 赵…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147318 号

书 名/ 山夜

著 者/ 赵宪浩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柳大植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印 刷/ 长春市时风彩印有限责任公司

开 本/ 880mm × 1230mm 1/32

印 张/ 6.75

字 数/ 200 千字

版 次/ 2007 年 10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10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467-2 (民文)

定 价/ 14.00 元

령혼을 찾는 현대인에게 정신의 집을 구축하는 일

-머리말을 대신하여

남영전

오늘을 살고있는 현대인, 날이 갈수록 정신의 공허와 령혼의 고독으로 점점 더 곤혹에 빠지는것이 현실이고 추세이다.

지나간 한세기, 인류는 자신을 위해 너무나 많은 기적을 창조한 동시에 또 너무나 많은 굴욕을 빚어내기도 하였다. 공구리성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류의 잠재적인 지능개발에 대성공을 거두어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을 전례없는 고봉으로 이끌었다. 인류는 생존환경과 자아개발 과정에서 또 전례없는 자유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떠한가? 불안과 곤혹에 몸부림치고있다. 기계와 기술에 대한 과분한 의뢰는 우리 생명의 주체성과 원창력을 상실하고있다.

때문에 20세기 인류의 이러한 실정을 고민한 대철학가들은 인류의 정신의 집을 새로 구축하는 일에 혼신을 불태웠다.

예로부터 문학작품은 지자가 신령과의 대화와 자아와의 교류에서 탄생한 숭고한 정신의 세계, 정신의 집이라 하였다. 이 정신의 집은 생명력이 강하고 감염력이 크기에 심령의 안착처이다.

지금에 와서, 정신세계가 고갈되는 현대인에게 좋은 작품 하나 선사한다는것은 말라가는 심령에 생명수 한모금 부어넣어 생명의 활력소를 환기시키는 훌륭한 작업이다.

새천년에 들어서서 광주모드모아그룹 리성일리사장과 손잡고 설립한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은 올해 제8회를 맞아 금년에 5명 수상자의 개인작품집을 합하면 지금까지 도합 43권의 작품집이 출판된다.

43권의 우수작품집, 령혼을 찾는 현대인에게 규모있는 정신의 집을 구축한 셈이다.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이 8년을 견지할수 있었던 근본원인은 리성일리사장의 지속적인 성원이 있었고 또한 심양우성전자유한회사 황원수사장, 그리고 길림성 로동 및 사회보장청 부청장이며 《길림신문》, 《장백산》발전연구회 회장인 신봉철선생 등 유지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먹향기 풍기는 5권의 새책을 독자들에게 선사하면서 재삼 리성일리사장, 황원수사장, 신봉철회장께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이 책을 만드느라 로고가 많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여러 선생님들께도 사의를 표한다.

2007년 8월 19일

장춘에서

차 례

령혼을 찾는 현대인에게 정신의
집을 구축하는 일 남영전/1

제1부 산사의 밤

- 산사의 밤/3
- 작은 가슴으로 큰 산을 안는다/4
- 길 없는 길을 가다/6
- 떨어지지 않는 잎새/8
- 삶의 향기/10
- 낙화/12
- 나목(裸木)/14
- 징검다리/16
- 마음만은/18
- 고목의 노래/20
- 꽃치자 나무를 보면서/22
- 갯벌/24
- 4월이 가면/26
- 봄이 오는 소리/28

가을 밤/30
바람과 구름의 조화를 보며/32
구절초(九折草)/34
바다/36
늦가을 은행나무/38
풍경소리/40
분수/42
겨울바람/43
자연의 품으로/45
민들레/47
바람은/49
새봄맞이/51

제2부 강물과 인생

강물과 인생/55
나는 누구인가/57
산다는 것은/59
나의 시작(詩作)/61
자화상/63
나는 못난이/65
작은 것에 만족/67
등지/69

나만의 시간/71
후회 없는 삶/73
구도자의 길/75
바다는 나의 친구/77
오늘은 오늘을 위하여/79
어리석음/81
인생의 빛/83
나를 서글프게 하는 일/85
한계와 도전/87
달력의 교훈/89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이야기/91
벗이란/94
기다리는 맛/96
생활속의 잡초/98
연 날리기 대회/100
자원봉사자의 첫걸음/102

제3부 아내의 강

아내의 강/107
아내의 생각을 훑쳐본다/109
황혼에 기대선 반려자/111
그림 한 점/113

잔소리/115
봄꽃/117
사랑의 전령/119
겨울섬/121
시이소오 게임/123
기다리는 사람/125
까치의 변심/127
진작에 왜/128
하늘의 뜻/130
행복의 길/132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133
내 사랑과 나의 시/136
그리움/138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140
그대를 생각하며/142
아쉬운 눈길/144
설날/146
오늘/148
나의 별자리/150
회초리의 유감/152
아기부처/154
향기로운 거짓말/156

제4부 생에 가장 가난한 날

- 생에 가장 가난한 날/161
- 삼천포 창선대교/162
-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164
- 순천만에서/166
- 월악산의 가을/168
- 바람과 혜능선사/170
- 산행/172
- 낙동강 하구 상념 / 174
- 노고단의 신록/176
- 뒤집혀 날으는 새/178
- 대구 한 마리/180
- 생명수를 지키자/182
- 동강을 찾아서/184
- 하통베이 티.툽섬에 올라/186
- 달마도(達磨圖) 망상/188
- 이화원(頤和園) 관광 수상(隨想)/190
- 금정산 찬가/192
- 세모(歲暮) 상념/194
- 해맞이 기원/196
- 제야의 종소리/198
- 새해 인사말을 바꿨시다/200

제 부
산사의 밤

산사의 밤

사방이 적막 속으로 침전 되니
풀벌레 울음소리 만리 밖 먼 길을 여네
장강의 물결 같은 자연의 소리에
지금 막 산사의 밤이 흔들린다
천연 전설이 밀려온다.

이 밤 동자승의 꿈결에는
엄마 품에 안겨 보채이고 있을까
서투른 염불 외우고 있겠다
신비의 소리에 만물은 잠들건만
나그네의 상념은 되 살아 나네.

바람이 보인다
또한 기다려진다
깊은 밤 산사의 주인
돌인가 셋인가.

작은 가슴으로 큰 산을 안는다

산이 손짓하는 것은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활고 활퀴며 살아가는
인생의 살기를 삭히려는 자비의 몸짓이다.

산이 계절 따라 변하는 것은
변덕을 일삼아서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움 벗어 던지고
진솔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산이 포근하게 안아 주는 것은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세파에 찌든 몸과 마음을
그냥 못 본체 할 수 없는 도량 때문이다.

산이 베풀기만 하는 것은

사람이 가여워서가 아니라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을
그대로 가질려는 몸가짐 때문이다.

천년을 하루같이
뒷자리에 비켜서서 자세를 낮추어도
성인군자의 도 다 지닌 산을
오늘은 작은 가슴으로 넉넉하게 안아본다.

길 없는 길을 가다

사람들은 넓고 평탄한 길 좋아한다
길이 있다고 가고 남이 가니 따라간다
앞 무리에 들었다고 우쭐대고
혼자 먼저 가려고 지름길도 찾는다
길손 끼리 오순도순 이야기꽃도 피우고
모르는 길 물어감이 좋으련만
좋은 풍광 외면하고 앞만 보고 달린다
짧은 여로 일찍 닿아 한숨 짓느니
먼 길 돌아 힘들게 찾은 영광 더욱 빛나리.

에디슨을 보라
인류역사 빛낸 인물 길 없는 길 걸어 왔다
순애보의 주인공도
사랑 위해 길 없는 길 걷는다
월चे어에 날개 달아 하늘을 날려던 꿈

황당무계라 난도질을 당했어도
언젠가는 영광의 길 열리리라
길 없는 길 가는 이들 외롭고 고달프다
이들이 있어 세상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오늘도 상사화는 말없이 피고 진다.